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생태체험학습을 마치고

조 수 진¹⁾

서울신도초등학교 교사

기온이 점차 서늘해지기 시작하는 시월의 막바지, 발령 받은 후 처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 밖으로 나섰다. 오늘은 한국 자연환경보전협회에서 주관하는 자연환경보존 생태체험학습일이다. 처음 나서는 현장학습이라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여러 선생님들과 협회장님, 회원분들께서 함께 동행해주셔서 마음이 든든하였다. 파란 가을 하늘아래 폴폴거리는 참새들처럼, 마냥 좋아서 재잘거리는 아이들을 협회에서 제공한 버스에 태우고 자리에 앉히고, 지켜야 할 일들을 말해주고 출발하려는데 창가 쪽 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무슨 일인지 묻자 아이들이 즐거운 목소리로 대답한다.

“선생님, 교장선생님이세요.”

창밖을 보자 잔잔하게 미소 지으며 아이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주시는 교장선생님의 모습이 보였다. 별 탈 없이 잘 다녀오라는 무언의 가르침에 마음속으로 대답한다. 많은 것을 보여주고, 느끼게 해 주고, 잘 돌아오겠습니다. 그때서야 첫 현장학습이라는 설렘이 어린 시절의 그것처럼 마음속에 가득해졌다.

버스를 타고 한 시간여를 달려 처음 도착한 곳은 국립 생물 자원관이었다. 이곳에선

한반도의 다양한 생물들을 분류·전시해 놓은 곳으로, 각종 동식물을 실제로 살펴볼 수 있는 곳이었다. 2학년씩 나누어서 안내해주는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전시실 내부로 이동하였다. 중앙 홀의 호랑이 모형 지나 제2전시실부터 관람하기 시작했다. 실제 산속과 흡사하게 꾸며놓은 전시실의 모습에 아이들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부엉이나 까마귀, 산양 등의 조류와 포유류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여러 나무와 물고기들의 모습을 구경하느라 신나하는 모습을 보며 함께 흐뭇해졌다. 단연 인기가 높았던 것은 직접 멧돼지 털을 만져볼 수 있도록 되어있는 전시물이었는데, 실제 멧돼지라고 하자 너도나도 만져보고 싶어서 오래 기다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어둠속의 동물들 코너를 지날 땐 직접 만져보고 체험해보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굉장히 즐거워 보였다.

제 1전시실은 원핵, 원생생물 및 진균, 식물, 대형 조류 및 포유류를 전시해 놓았다. 초등학교 5학년이면 고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집중해서 보기엔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다. 하지만 안내해주는 선생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며 관람하는 아이들은 관람 내내 진지한 태도였다. 여러 식물들이

1)JO, Su Jin, Seoul Sindo Elementary School

조화롭게 어우러져 자라나는 꽃자왈 생태관을 지나 아이들에게 자유 관람 시간을 주자, 삼삼오오 나뉘어 더 보고 싶었던 곳, 직접 해보고 싶었던 체험학습장 등으로 흩어져갔다. 아이들이 이 땅에 수많은 생물들과 우리가 함께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아니 마음으로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며 자유 관람을 마쳤다.

협회에서 제공한 맛있는 점심식사와 촬영을 마친 후 강화 갯벌센터로 이동했다. 주차장에서 오솔길을 따라 십여 분 정도 걸어서 도착한 강화 갯벌센터는 정겨운 오두막집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입구에서 슬리퍼를 갈아 신고 지하로 내려가 한국의 갯벌에 대한 영상을 보고, 내부의 전시물들을 살펴보았다. 갯벌의 생물들과 흡사하게 꾸며 놓은 모형들에 징그럽다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호기심을 가지고 조작해보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갯벌을 망원경을 통해 관찰할 때는 장난스러운 아이들마저 진지하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갯벌의 생성 원리와 먹이사슬에 대한 설명을 마저 듣고, 기다려 마지않던 갯벌로 이동하였다.

조금은 좁고 가파른 길을 따라 내려가 함께해주신 협회 분들의 상세한 설명, 안전지도를 아이들과 함께 들고,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주고 갯벌 가까이까지 다가갔다. 갯벌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은 발 닿

는 곳 가까이에서도 조개껍질과 작은 참깨, 식물들을 손쉽게 찾아내어서는 내게 보여주려고 다가오곤 했다. 손바닥 위에 살아있는 게를 올려놓고 신기해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예쁘던지... 몇몇 아이들은 집으로 가져가고 싶다고, 집에서 키우고 싶다고 ‘선생님, 가져가도 되요?’하고 물어왔다. 하지만 갯벌을 이루고 있는 생물들을, 그 모든 것들을 함부로 가져가면 갯벌이 훼손되고 다음에 이 곳에 오는 사람들은 볼 수 없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자 서운해 하면서도 받아들이고 모두 놓아주었다. 어린 마음에 갖고 싶은 마음이 클 텐데, 이해하고 수용하는 모습이 대견했다. 환경답사의 막바지, 협회장님 및 회원님께서 내주시는 퀴즈를 풀고 상품을 챙기고, 기념촬영까지 마친 후 아이들과 버스를 타고 돌아왔다.

이번 환경답사를 함께 한 후 아이들의 느낌을 들어보니 생물의 종류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이야기, 갯벌의 중요성을 다시 알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였다. 우리가 오직 단일한 존재로서, 이 땅 위에 독자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이 조금은 느낄 수 있었던 것일까?

환경답사를 마치고, 그동안 학교 특색사업으로 해 왔던 자전거 교육의 의미를 다시 이야기해 보았다. 그동안 단순히 자전거를 즐겁게만 타던 아이들이, 왜 편리한 자동차를



두고 굳이 자전거를 가르쳐 주는지 생각해 보자고 하자 나름의 고민에 빠져든다. 처음엔 생각을 이야기하기 어려워했지만, 곧 한두 개씩 생각들이 터져 나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튼튼해지기 위해서, 석유를 안 쓸 수 있어서 등등. 자연은 우리가 보았던 갯벌 따로, 우리가 살고 있는 북한산 주변 따로, 시골 따로, 도시 따로가 아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시스템이며 어느 한 곳에서 발생하는 오염이 다른 곳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지금 우리가 작게 실천하는 환경 보호가 전체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끌어나갔다. 아이들에게는 조금 지루할 수도 있었을 텐데, 환경답사를 다녀오며 찍었던 사진들을 함께 보여주니 재미있어 하면서도 진지하게 이야기를 함께 해주었다.

아이들에게 생명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준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와 함께 동승하고 행동해 주신 회장님 및 회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앞으로도 많은 아이들이 좋은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한다.